

개미 오줌 할머니

김소정

집에 오자마자 냉장고를 열었어요. 학교가 끝나고 떡볶이를 두 컵이나 먹었는데도 또 배가 고팠어요. 아이스크림을 통째로 꺼내 순식간에 한 통을 다 퍼 먹었어요. 엄마는 내가 먹는 걸 입에 달고 산다고 걱정을 하면서도 주머니에 항상 간식을 넣어 줘요.

그래서 그런지 화장실을 자주 가게 돼요. 수업시간에는 꼭꼭 참으려고 해도 점심시간이 지나면 결국 손을 들고 말아요. 전학 온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동수인 내 이름을 똥수라고 부르는 애가 생겼어요. 어떤 애는 나한테 냄새난다면서 코를 막고 똥보 똥수라고 놀렸어요.

아이스크림 한 통을 다 먹고 나는 화장실로 달려갔어요. 볼일을 다 보면 몸에서 똥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샤워를 하고 싶어져요. 시원하게 샤워를 마치고 나올 때였어요.

땡땡땡

초인종이 울렸어요. 수건을 치마처럼 두르고 현관문으로 걸어갔어요. 엄마가 누가 와도 없는 척 하라고 했지만 입에서 벌써 말이 나와 버렸어요.

“누구세요?”

“4층 할머니다.”

할머니라고 하는데 목이 쉰 할아버지 목소리가 들렸어요.

백조 빌라. 우리 집은 4층짜리 건물에 3층이에요. 며칠 전에 우리는 이곳으로 이사를 왔어요. 이사 온 날, 엄마가 위층 할머니가 다짜고짜 물 타령을 해서 싸웠다고 한 말이 떠올랐어요.

“근데 왜요?”

내가 짜증을 내며 물었어요.

“지금 뭐했냐?”

“그냥 있는데요.”

“뭐라고?”

“그냥 있다고요!”

할머니가 한 번에 알아듣지 못해서 아주 큰소리로 말해야 했어요.

“문 좀 열어 봐.”

“안 돼요. 엄마가 문 열어주지 말랬어요.”

“엄마는 어디 갔어?”

나는 또 생각했어요. 정말 나쁜 사람이 할머니인척 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생각이 끝나기도 전에 말이 먼저 나와 버렸어요.

“요 앞 김밥 집에서 아빠랑 일하고 있는데요.”

“너 물 썼지?”

집안을 뻥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처럼 말해서 깜짝 놀랐어요.

“쓰던 말든 무슨 상관이에요?”

“장독에 물 받는데 개미 오줌마냥 쫄쫄 나오니까 그렇지!”

우리 집도 그랬어요. 뜨거운 물로 씻고 있는데 갑자기 차가운 물이 나왔어요. 쫄쫄 나오던 물이 세져서 옷이 흠뻑 젖을 때도 있었어요. 그렇다고 개미오줌 만큼은 아니었어요.

“개미는 오줌 그렇게 많이 안 싸거든요!”

“앞으로 물 쓸 거면 나한테 전화하고 써!”

문 밖에서 할머니가 큰 소리로 전화번호를 불렀어요. 나도 모르게 핸드폰을 들고 와 전화번호를 푹푹 눌렀어요.

‘이름을 뭐라고 하지?’

나는 ‘개미 오줌 할머니’라고 쓰고 저장 버튼을 눌렀어요. 할머니가 4층으로 올라가고 가만히 생각하니 슬슬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우리 집 물을 쓰는 데 왜 할머니에게 허락을 받아야 해요. 나는 핸드폰을 소파에 던지고 옷을 입었어요. 옷을 입는 동안 고약한 할머니 모습이 저절로 머릿속에 그려졌어요.

흰 머리가 발끝까지 길게 내려오고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있을 거예요. 얼굴엔 주름이 자글자글 하고, 긴 매부리코는 코끝이 화살표처럼 뾰족하겠죠. 게다가 고양이를

열 마리 정도 키울 것 같았어요. 밤이면 고양이 우는 소리가 요란했거든요. 욕조에 뜨거운 물을 받아서 고양이를 씻길 수도 있어요. 그러려면 아주 많은 물이 필요할 테니까요. 아니면 고양이로 죽을 만드는 건지도 모르죠. 거기까지 생각하니 팔에 오소소 소름이 돋았어요.

‘목소리가 남자 같던데 할머니가 아닐지도 몰라.’

상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그 때 배에서 또 꼬르륵, 하고 소리가 났어요. 식탁에 엄마가 차려 놓은 간식이 있었지만 나는 컵라면을 꺼냈어요. 정수기에 대고 물을 부으니 라면 냄새가 풍기기 시작했어요.

“흐음, 기분 좋은 냄새.”

라면 뚜껑을 덮고 핸드폰으로 알람을 4분으로 맞춰요. 나는 무심코 핸드폰 연락처를 열었어요. 거기에는 엄마, 아빠, 그리고 ‘개미 오줌 할머니’ 그렇게 딱 세 사람이 저장되어 있었어요. 1학년이 되면서 핸드폰을 사줬는데 일 년이 넘도록 친구 전화번호를 하나도 받지 못했어요. 갑자기 허기가 몰려왔어요. 나는 라면 한 개를 다 먹고, 또 하나를 꺼내 물을 부었어요. 엄마가 와서 저녁을 차려주기까지는 두 시간이나 남았거든요. 라면 하나를 다 먹고 나서 배가 살살 아프기 시작했어요. 배를 움켜쥐고 허리를 굽혀 화장실로 뛰어 갔어요. 볼 일을 보고 나서 샤워하고 머리까지 감았어요.

그때였어요. 또 초인종이 울렸어요. 아차! 그제야 할머니가 전화하라고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대답을 안 하니까 문을 탕탕 두드렸어요. 나는 어쩔 수 없이 머리에 거품을 잔뜩 문힌 채 빼꼼히 화장실 문을 열었어요.

“물을 쓸 거면 전환 해야지!”

할머니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화장실 갔어요!”

“그럼 전환 해야 될 거 아냐?”

“어유, 똥이 급한데 어떻게 전화를 해요?”

“똥을 싸는데 그렇게 물을 많이 써!”

머리에서 흘러내린 거품이 눈으로 들어갔어요.

“아, 몰라요. 눈 매워 죽겠어요!”

“너만 힘드냐, 할미가 계단 내려오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알어? 아이고, 늙은이 죽겠네. 아이고 무릎이야,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아이고!”

할머니가 주사 맞는 아이처럼 아프다고 엄살을 부렸어요. 나는 눈이 몹시 따가워서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거품을 닦아내고 보니 눈이 빨갱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옷을 대충 걸치고 나오는데 할머니가 뻥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물 좀 작작 써!”

나는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문을 핵 열어젖혔어요.

“아, 진짜! 전화하면 되잖아요!”

문을 열고서 나는 깜짝 놀랐어요. 문 앞에는 내가 상상했던 모습과 너무 다른 사람이 서 있었어요. 뽀글뽀글 하얀 파마머리에 키가 몹시 작은 할머니였어요. 몸을 구부정하게 굽히고 지팡이에 간신히 몸을 의지하고 있었어요. 할머니 손이 마른 나뭇잎 같이 앙상했어요. 지팡이를 짚고 있는 손이 너무 말라서 잘못된 것도 없는데 괜히 미안해졌어요.

“다음부터 전화할게요.”

나는 개미만큼이나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문을 닫으려고 하니, 할머니가 집안을 기웃기웃 들여다봤어요. 나는 멀뚱히 서서 할머니 눈길을 따라 집 안을 들여다봤어요. 우리 집이 다른 집처럼 보였어요.

거실 바닥에 아무렇게나 벗어놓은 옷이 있었어요. 책가방에서 교과서가 쏟아져 나와 있고, 방마다 불이 켜져 있었어요. 텔레비전 소리가 찌렁찌렁 크게 울렸어요. 좀 전에 먹은 컵라면 두 개와 과자 봉지가 식탁에 있고, 라면 면발이 지렁이처럼 식탁 위를 기어 다녔어요.

“엄마는 만날 늦게 오나?”

할머니가 물었어요.

“네.”

“너는 만날 혼자 있고?”

“네.”

할머니가 귀찮게 이것저것 계속 물어봤어요. 친구랑 놀지 왜 집에만 있냐며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만 골라서 했어요.

“앞으론 꼭 전화하거라.”

할머니의 쉼 목소리가 아까와는 달리 무척 부드러웠어요. 지팡이로 계단을 짚으며 올라가는 할머니가 아슬아슬 쓰러질 것 같았어요. 발을 올릴 때마다 끽끽 앓는 소리를

냈어요.

쇼파에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오줌이 마려웠어요. 오줌 누러 가는 것도 말해야할지 고민을 하다가 개미 오줌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급한데 왜 안 받는 거야?’

현관문을 열고 4층으로 뛰어 올라갔어요. 계단을 비추는 등이 고장 났는지 켜지지 않았어요. 어두워진 계단을 오르니 조금 무서웠어요.

땡땡땡

401호 초인종을 눌렀어요. 두 번이나 눌렀는데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어디 갔나?’

나는 문을 두드리면서 할머니, 하고 크게 불렀어요. 마침내 문이 열리고 할머니가 눈을 게슴츠레 뜨고 나왔어요. 파마머리 한쪽이 눌러 있었어요.

“물 쓰려고요. 전화했었어요.”

“그랬지, 내가 전화하랬지.”

우물쭈물 서 있으니 할머니가 집으로 들어오라고 했어요. 우리 집보다 더 큰 소리로 텔레비전이 켜져 있었어요. 오줌이 금방이라도 나올 것 같아서 얼른 들어가 화장실을 먼저 찾았어요. 우리 집과 같은 쪽에 화장실이 있었어요. 불일을 보고 나왔는데 할머니가 쇼파 방석을 뒤집으며 전화기를 찾고 있었어요. 온 집안에 이상한 냄새가 진동을 했어요. 똥 냄새 같기도 하고 발 구린내 같기도 했어요. 물을 그렇게 많이 쓰는데 씻지도 않고 사는 건지 의심이 됐어요. 고양이는 한 마리도 없었어요. 대신에 베란다 유리창 밖에 크고 작은 화분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어요. 화초들 때문에 창이 반쯤 가려져 있었어요. 네모난 벽돌 같이 생긴 것이 베란다 창가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고, 그 밑에 큰 향아리들이 있었어요.

“할머니, 저 갈게요.”

“엄마는 어제 오누?”

“아직 멀었어요. 그래도 아빠보단 빨리 와요.”

“밥 해 놓고 깜빡 졸았네. 저녁 먹구 가련?”

“아니요.”

내 말을 못 들었는지 할머니는 찌개를 데우고 밥을 찻어요. 나는 어쩔 수 없이 식탁에 앉았어요. 주걱을 잡은 할머니 손에 주름이 많았지만 힘줄이 불쑥 솟아나 있었어요.

팔팔 끓는 찌개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도 입안에 침이 고였어요. 난 왜 항상 배가 고플지 모르겠어요. 아마 똥을 자주 싸서 그런 것 같아요.

“자, 밥 먹자.”

할머니가 가시를 발라 하얀 생선살을 밥 위에 얹어 주었어요. 한 입 떠먹으니 밥이 아이스크림처럼 사르르 녹았어요. 짭조름한 생선은 쫄깃쫄깃 하고, 두부가 동동 떠 있는 찌개도 맛이 끝내줬어요. 남남 짹짹 소리를 내면서 순식간에 밥 한 그릇을 푹딱 비웠어요.

“네 덕분에 나도 밥다운 밥을 먹었구나.”

할머니가 웃는 건지 우는 건지 모를 표정을 지었어요.

“배가 불러요!”

처음이었어요. 뭔가를 먹고 배부른 것이.

“우리 후식도 먹어야지?”

할머니가 일어나서 냉장고에서 요구르트 두 개를 꺼냈어요. 요구르트도 단숨에 벌컥 벌컥 들이켜고서 카, 하고 아저씨 같은 소리를 냈어요. 나는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이 소리 때문에 늘 부끄러워요. 급식 먹을 때마다 애들이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거든요. 하지만 할머니는 나를 보고 활짝 웃었어요.

창밖에서 고양이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창가에 매달린 벽돌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할머니, 저건 모예요?”

“메주. 그걸로 찌개를 끓였지. 어때, 메주 맛있지?”

내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니 할머니가 신이 나서 말했어요.

“메주가 얼마나 맛이 좋은데 다들 냄새 난다고 싫어들 해. 장독에 간장, 고추장도 메주로 만들고, 몸엔 또 얼마나 좋다구!”

창밖에서 고양이들이 또 아양아양 울었어요.

“고양이 소리가 나서 할머니가 키우는 줄 알았어요.”

“어디 고양이가 울어?”

“할머니 안 들려요?”

“너두 늘어봐라 잘 들리나.”

“그럼 전화해도 소용없잖아요.”

“.....”

나는 다 먹은 요구르트 병을 쪽쪽 빨면서 생각에 빠졌어요. 화초들 옆에 메주를 묶은 끈이 방석처럼 돌돌 말려 있었어요.

“좋은 생각이 났어요!”

요구르트 병을 끈으로 묶고 베란다 난간에 걸쳐서 내렸어요. 잡고 있던 끈은 난간에 푹푹 묶었고요.

“할머니, 물을 쓸 땐 이걸 내리세요. 요구르트 병이 보이면 절대 물 안 쓸게요.”

그날, 평소보다 늦은 시간에 엄마가 아빠와 같이 들어왔어요. 엄마는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가방에서 김밥을 꺼냈어요.

“밥 먹었어. 할머니가 밥 해 줬어.”

“무슨 할머니?”

“4층 할머니.”

“애가, 애가, 너 엄마가 혼자 있을 때 아무한테도 문 열어 주지 말라고 했잖아. 근데 4층 할머니가 밥을 해 줬어?”

엄마가 고개를 가우뚱하고 식탁으로 돌아서며 중얼거렸어요.

“그 고약하기로 소문난 할머니가 웬일이래. 희한한 일이네.”

엄마가 빈 컵라면을 보더니 나를 노려봤어요. 만날 라면만 먹는다고 한바탕 잔소리를 하면서 행주를 들고 물을 틀려고 했어요. 나는 얼른 베란다가 확인했어요. 요구르트 병이 내려와 있었어요.

“안 돼, 엄마. 지금 물 쓰면 안 돼.”

나는 팔을 벌려 엄마를 가로 막아 섰어요.

“애가 왜 이래, 오늘따라 이상하게 구네.”

그때 아빠가 씻으려고 옷을 벗었어요. 나는 식탁 의자를 화장실 문 앞에 놓고 앉았어요.

“안 돼, 지금 물 쓰면. 아무도 물 쓰면 안 돼.”

나는 의자에 딱하니 앉아서 엄마 아빠가 물을 쓰는지 안 쓰는지 감시했어요. 엄마 아빠가 나를 의아하게 쳐다봤어요. 그 모습을 보고 나는 속으로 히히히 웃음이 났어요.

창밖에 매달린 요구르트 병이 ‘달그닥 달그닥’ 즐거운 소리를 냈어요.